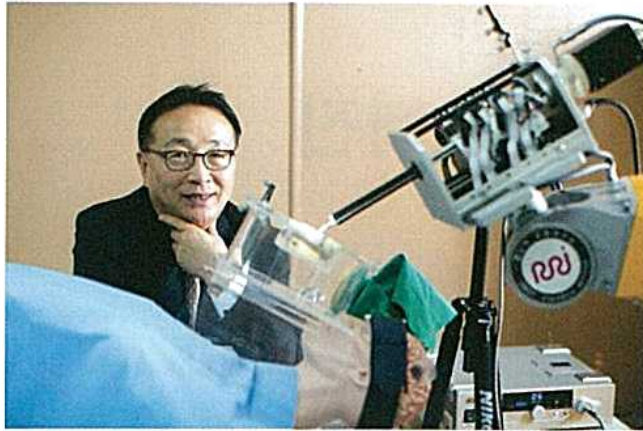


로봇과 사랑에 빠진 남자의 끝없는 도전

박종오 전남대학교 교수 · 로봇연구소장

세계적인 로봇 권위자라기에 연구실에 각종 로봇이 빼곡히 들어차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양쪽 벽 책꽂이에는 하늘색의 두터운 클리어파일만 가득했다. 최첨단의 연구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아날로그적 관리에 자부심을 느끼는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 소장인 박종오 교수. 그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로봇과는 거리가 먼, 의료용 나노로봇 분야의 선구자다.

“2003년 개발한 캡슐 형태의 대장 내시경 로봇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의료기기였어요. 현재는 혈관과 소화기관 등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동 구동 캡슐 내시경을 개발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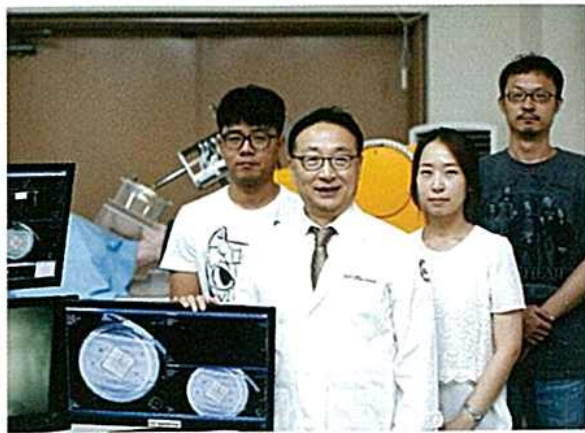


작 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왜 굳이 의료용 로봇이었을까. 그는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할 당시만 해도 로봇이란 단어 자체가 생경했다”며 “늘 새로운 기술에 목말라하던 공학도로서의 갈증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과 만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인체 절개를 최소화해 고통을 경감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게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인체 절개가 없는 수술이죠. 인권도시 광주가 의료 측면에서도 고통 받지 않을 인간 권리 선언의 중심지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실 그는 생산도시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광주에서 로봇 산업을 일으킨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 기계 산업의 발달로 산업용 로봇에 주력하는 영남 지역과 달리, 제조 기반이 취약한 광주를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이 뭘까 고심하던 중 21세기의 신주류인 지식 기반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의료용 로봇이 적합하



다고 생각했다니, 그런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 싶다.

의료용 로봇의 비약적 발전이 의사 없는 세상을 창조하게 될 것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주사기로 마이크로칩을 넣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수술하는 최첨단 기술이야말로 가장 숙련된 의사를 필요로 하죠. 기술의 속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인간 삶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창조와 도전이야말로 원칙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확인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그의 자료 관리 방식이 비로소 이해됐다.

○ 공학도의 양면성, 진취성과 겸손

로봇공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에 도전해 35년 외길을 걸어온 박종오 교수. 교수로서 정년을 바라보는 적잖은 나이임에도 자신이 늙은 현역이라고 생각하고, 주말도 휴일도 없는 현재 상태가 즐겁기만 하단다.

“공학도는 옛것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죠. 항상 새로운 사고방식과 초심자 같은 겸손함으로 연구에 임해야 합니다. 새벽 2~3시에 퇴근하는 게 보통인데, 그 시간에 집에 가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길로 다시 연구실로 향하곤 해요. 내가 이만큼 이뤘는데 하는 생각으로 안주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연구 작업은 물론 학회 활동이나 국내외 초청 등으로 늘 바쁜 그는 지난 일 년간 서울로 98회,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로 11회, 국내 다른 도시로 23회 출장을 다녀온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나날이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을 텐데도, 오히려 그 긴장을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다며 다녀온 지역을 표시해놓은 세계지도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후배나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적잖을 것 같았다.

“첫 번째는, 단순해라! 할 일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되면 그 한 방향으로만 단순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겸손함으로 밀고 가라. 두 번째는, 자신

의 일에 최대 가치를 부여하라! 자기 분야에서 누구와 대결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기 가치를 높여라.”

꿈을 이루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노동이나 일회성 돈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에 자신의 잠재가치를 사장시키지 말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덧붙임.

“지역에 안주하지 마라! 그야말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 목표를 크고 높게 세우고, 긴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로봇 연구자로서 박종오 교수 자신은 “연구 작업이 인간 삶에 반드시 필요한가,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며 효율적인가, 경제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한가를 끊임없이 저울질한다”며 “이런 고민이 전 지구적 차원의 로봇 윤리 마련에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글 이진 · 사진 김영태

1955년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KAIST(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석사,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교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단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이자 로봇연구소 소장이다. 세계 최초 캡슐형 대장 내시경 로봇 개발 등의 기술 개발은 물론, 국제로봇연맹 집행이사 겸 한국 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올해의 과학자상,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등을 수상했다.

contents

감사의 말 • 4

창조와 도전

넉넉한 미소와 도전적 실천의 아이콘 • 15

김보곤 디케이산업(주) 대표이사 회장

창업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나눔의 행복 • 21

김성진 주식회사 영암마트 대표이사

젊음의 패션을 완성하는 인터넷 쇼핑몰 • 27

김윤경·손석호 (주)바리엔유 공동대표

자기 길을 알고 가는 인생은 아름답다 • 33

노태근 다우령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뭔가 다르게 한다는 것, 다르게 하면서도 잘한다는 것 • 39

박금준 601비상 대표

로봇과 사랑에 빠진 남자의 끝없는 도전 • 45

박종오 전남대학교 교수·로봇연구소장

세계와 미래를 향한 도전적 열망 • 51

배효환 (주)이앤비소프트 대표이사

방향을 방향으로 틀어버린 튜닝의 제왕 • 57

송승한 (주)쓰리닷 대표이사

창조와 도전

넉넉한 미소와 도전적 실천의 아이콘

창업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나눔의 행복

젊음의 패션을 완성하는 인터넷 쇼핑몰

자기 길을 알고 가는 인생은 아름답다

뭔가 다르게 한다는 것, 다르게 하면서도 잘한다는 것

로봇과 사랑에 빠진 남자의 끝없는 도전

세계와 미래를 향한 도전적 열망

방향을 방향으로 틀어버린 튜닝의 제약

매혹된 자, 열정으로 인생을 유턴하라

끝없는 도전 정신이 키우는 미래 가치

넓은 바다 위에서 꿈틀대는 자기 혁신



김보근 김성진
 김윤경 손석호
 노태근 박금준
 박종오 배효환
 송승환 이영숙
 황대영 황재웅
 김병운 김재규
 김 진 마옥천
 박명성 송영한
 이승우 이이남
 장성규 최경주
 최병현 김용환
 박종범 양진석
 오동찬 장 미
 장인수 최상준
 하정웅 허 탁
 황풍년 강웅주
 강위원 김대근
 김선자 박 종
 선동윤 신조아
 정철웅 조상권
 한신애 강 용
 김준하 김진봉
 박기홍 오상호
 이은민 정몽석
 조 현 함경식

희망이 희망에게

자신의 꿈을 지배하라



산처럼

광주MBC 창사50주년 **희망인물 프로젝트**
 51명의 희망지기! 그들이 들려주는 희망 메시지

